

23-18(통권 958호) 2023.12.29

경제주평

■ 2024년 글로벌 트렌드

- 분열하는 세계와 커지는 그림자 리스크

목 차

■ 2024년 글로벌 트렌드

- 분열하는 세계와 커지는 그림자 리스크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2024년 글로벌 트렌드의 주요 내용	2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저 자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노 시 연 선임 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Executive Summary

□ 2024년 글로벌 트렌드

- 분열하는 세계와 커지는 그림자 리스크

■ 개요

2024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7가지 트렌드가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부문에서는 ‘우(右)로 정렬하는 세계’와 ‘군비경쟁(Arm Race)의 재림’을 선정, 경제 부문에서는 ‘중간에 닷 내린 물가’와 ‘도시 파멸의 고리(Urban Doom Loop)’를,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에서는 ‘우주경제(Space-economy) 경쟁의 격화’, ‘그린래시(Greenlash)의 역습’, ‘디지털 범죄의 진화(Evolution of Digital Crime)’를 각각 꼽았다.

이상의 트렌드는 세계의 분열과 국지적인 충돌이나 분쟁이 잦아진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글로벌 경제가 심화되는 경쟁과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그림자 리스크로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에 적절한 사전대응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또는 회피하는 한편 반사적인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해 위기 극복의 지렛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2024년 글로벌 트렌드의 주요 내용

① 우(右)로 정렬하는 세계

2024년은 미국, 유럽연합 등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해로 전 세계적인 우파의 강세 속에 자국 우선주의 등이 심화할 전망이다.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투표하게 되는 해인 만큼 한 해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예정이다. 그 중에서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민법 강화, 보복 관세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연합은 2020년 브렉시트 이후 처음 시행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파 정당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파의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난민 정책,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목표 등 수많은 정책이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에서 예정된 선거도 2024년 국제 사회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 각국의 선거 이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 또한 경제 및 정치 전략의 재편,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 등으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군비경쟁(Arms Race)의 재림

최근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고조된 가운데 향후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을 확대하는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2023년 분쟁 중인 국가(지역)는 총 19개국으로 내전이 다수이나, 최근 국가 간 충돌도 증가하는 양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중인 가운데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향후 이스라엘-헤즈볼라 충돌 가능성에 더불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발족되는 등 내전 상황이 국가 간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 및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군비 지출을 증액하는 흐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군비 지출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2년 2조 2,40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24년에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하는 등 군비 지출 증액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험 증대와 군비경쟁은 국내 안보는 물론이고 원자재 가격 불안, 공급망 차질 등 경제 여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련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중간에 닷 내린 물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중물가 현상이 고착되어 2000~10년대의 저물가 시대가 재도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대 들어 세계화, 기술 혁신 등의 영향으로 저물가 현상이 이어져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까지 겹쳐 '저물가-저금리' 국면에 진입하였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2023년까지도 다소 높은 수준을 지속 중이다. 향후에도 탈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의 중물가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저물가 시대는 상당 기간 도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주체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금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더 나아가서는 정책목표(물가상승률 2%) 수정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가계의 경우 소비재를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도 존재한다. '중물가-중금리'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성,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④ 도시 파멸의 고리(Urban Doom Loop)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CRE) 시장의 침체 장기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국 실물경기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촉발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주요국의 오피스 공실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전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글로벌 금융 및 실물경기의 핵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은 관련 익스포저가 큰 중소 은행에 대한 건전성 우려로 이어져 디지털 뱅크런(digital bank-run)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IMF('23.4, Global Financial Stability)에 의하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미국 및 유럽 은행의 대출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미국, 유럽의 국내총생산은 각각 0.44%p, 0.45%p 하락하는 등 주요국 실물경기가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우주경제(Space-economy) 경쟁의 격화

지경학(geo-economics)적 리스크 증대에 따라 글로벌 정치·외교·군사적 필요성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우주경제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최근 들어 궤도 우주비행체 발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 부문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글로벌 우주경제 규모는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르는 위성 서비스 시장 확대 등의 영향으로 위성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2022년 3,84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우주경제는 규모도 미미할 뿐 아니라 국가 예산도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상황이다. 우주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국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기초연구에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혁신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위성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관련 산학연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⑥ 그린래시(Greenlash)의 역습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경제적 부담 확대와 각종 사회적 갈등 고조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확산되고 주요국 탄소중립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

라이나 전쟁 등에 따르는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 탄소중립 후퇴 사례가 속출하는 한편 글로벌 탄소배출량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대응지수 순위는 2023년 기준 6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 끈적한 고물가) 지속,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르는 경제적 고통해소 지연으로 향후에도 그린래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하고,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나 기존 산업 경쟁력 유지 및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⑦ 디지털 범죄의 진화(Evolution of digital crime)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를 악용한 디지털 범죄의 종류와 관련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랜섬웨어(ransomware)와 사이버 피싱(phishing) 공격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ChatGPT가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탐지 우회 기능을 가진 고급 멀웨어(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 생성과 배포, 피싱 페이지 제작 등을 제공하는 '프러드GPT(FraudGPT)'가 등장하였으며, 피싱 메일 생성과 배포를 돕는 사이버 범죄용 인공지능 챗봇인 '웜GPT(WormGPT)'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ChatGPT의 악용과 함께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은 '22년 8.4조 달러에서 '27년 23.8조 달러까지 약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사이버 위협에 대해 예전보다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민·관이 더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보안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개요

-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주요 국내외 미래 분석 자료 등을 토대로 2024년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대 트렌드를 선정함
- 정치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우(右)로 정렬하는 세계'와 '군비경쟁(Arms Race)의 재림'을 선정
-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중간에 닳 내린 물가'와 '도시 파멸의 고리(Urban Doom Loop)'를 선정
-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로는 각각 '우주경제(Space-economy) 경쟁의 격화', '그린래시(Greenlash)의 역습', '디지털 범죄의 진화(Evolution of digital crime)'를 선정

< 2024년 글로벌 트렌드 >

분야	주제	내용
정치	1. 우로 정렬하는 세계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우파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2. 군비경쟁의 재림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의 영향으로 세계 군비경쟁이 재점화할 전망
경제	3. 중간에 닳 내린 물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증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전망
	4. 도시 파멸의 고리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장기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국 실물경기의 경착륙을 촉발할 가능성에 유의
산업·기술	5. 우주경제 경쟁의 격화	글로벌 정치·외교·군사적 필요성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우주경제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환경	6. 그린래시의 역습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확산되고 주요국 탄소중립정책이 후퇴
사회·문화	7. 디지털 범죄의 진화	생성형 AI를 악용한 디지털 범죄의 종류와 관련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2024년 글로벌 트렌드

① 우(右)로 정렬하는 세계

- (의미)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우파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2024년 중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우파 정당의 득세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2024년 중 미국 대선, 유럽의회 선거 등 국제 정세에 큰 파급력을 가진 선거가 치러질 예정
 - 한편, 최근 각국에서 우파 성향 정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향후 선거에서도 우파가 집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내용) 2024년은 미국, 유럽연합 등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예정된 해로 전 세계적인 우파의 강세 속에 자국 우선주의 등이 심화할 전망
 - 2024년은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투표하게 되는 해인 만큼 한 해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예정
 - 2024년은 총 76개국,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인 약 42억 명이 투표하게 되는 해
 -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시작으로 3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선, 4월 대한민국 및 인도 총선, 6월 유럽의회 선거, 11월 미국 대선 등이 예정되어 있어 한 해 동안 정치적 불확실성에 노출될 것으로 보임
 - 그중에서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전 세계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진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
 - 11월 미국 대선에서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재대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자 대결을 상정한 여론조사¹⁾에서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는 상황
 - 트럼프 2기가 현실화될 경우 이민법 강화, 보복 관세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
 - 또한, 친환경 에너지 지원책 폐기,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전기차 및 배터리 업계에 타격이 있을 전망

1) 508개 여론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각 43.4%, 45.3%로 트럼프가 우세인 것으로 나타남(더 힐, 2023.12.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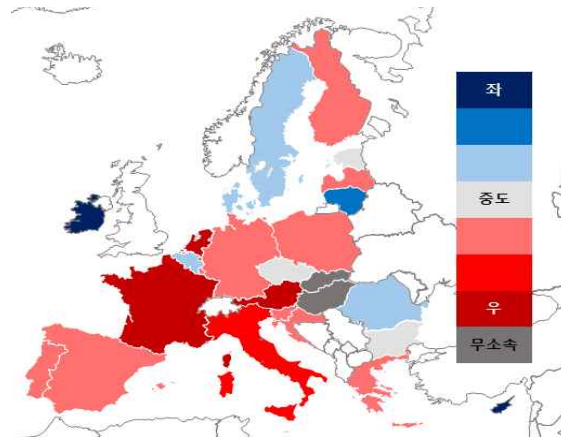
- 또한, 유럽연합은 2020년 브렉시트 이후 처음 시행되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우파 정당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음
 - 6월 유럽의회 선거를 앞두고 최근 반(反)이민 정서 확산, 경제난 등으로 우파, 그중에서도 극우 정당의 약진이 지속
 - 우파의 흐름이 이어질 경우 난민 정책,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 목표 등 수많은 정책이 변화에 직면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브라질 등에서 예정된 선거도 2024년 국제 사회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
 - 1월 대만 총통 선거는 양안(중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미·중 갈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됨
 - 3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선도 전쟁의 향방이 달린 만큼 국제 정세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
 - 10월 브라질 기초의원 선거는 중남미 전체의 정치 지형 변동²⁾을 가늠할 수 있는 선거가 될 전망

< 2024년 주요 선거 일정 >

일정	국가
1월	대만 총통 선거
3월	러시아 대통령 선거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4월	대한민국 총선 인도 총선
6월	유럽연합(27개국) 유럽의회 선거
10월	브라질 기초의원 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연중	영국 총선

자료 : Economist.

< 유럽연합(27개국) 정치 지형도 >



자료 : Europe Elects,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23년 11월 30일 기준.

- (시사점) 2024년 각국의 선거 이후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 또한 경제 및 정치 전략의 재편,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 등으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

노 시 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2) 최근 칠레, 아르헨티나 등에서 우파가 집권하며 2020년대의 2차 핑크타이드(좌파 정권 물결)에 균열.

② 군비경쟁(Arms Race)의 재립

○ (의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의 영향으로 세계 군비경쟁이 재점화할 전망

- 최근 지정학적·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 간 분쟁이 확산하면서 전쟁 중인 국가는 물론이고 미국 등 주요국의 군비 증액 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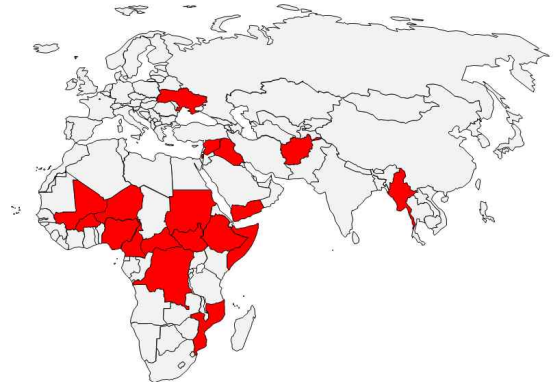
○ (내용) 세계적으로 국가 간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가운데 향후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 규모 확대 현상이 지속될 전망

- 2023년 기준 분쟁 중인 국가(지역)는 총 19개국으로 내전이 다수이나, 최근 국가 간 충돌도 증가하는 상황

- World Bank의 취약 및 분쟁 상황 국가 목록에 따르면 2023년 분쟁 중인 국가는 19개국이며, 중동·아프리카 지역이 16개국으로 전체의 84%를 차지
- 대부분 내전 상황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 중인 가운데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전쟁 등 국가 간 충돌도 빈번해진 상황
- 또한, 최근 이스라엘-헤즈볼라(레바논) 충돌 가능성에 더불어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선박 공격에 따른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발족³⁾ 등 내전 상황이 국가 간 충돌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지정학적 위험이 크게 고조

< 2023년 분쟁 국가 및 지역 >

중동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서안 및 가자지구, 예멘
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말리, 모잠비크, 니제르,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아시아	미얀마
유럽	우크라이나



자료 : World Bank, Classification of Fragile and Conflict-Affected Situations, FY24 FCS List.

- 이에 세계평화지수 등 지정학적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 또한 크게 악화

- 경제평화연구소(IEP)가 발표하는 세계평화지수는 세부 항목 중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이 크게 상승하며 2023년 2.07p로 2015년 이후 9년 연속 악화

3) '23년 12월 홍해 안보를 위해 창설한 '번영의 수호자 작전'으로 미국을 비롯한 20개국 이상이 동참.

- 러-우 전쟁 이후 324.2p(2022년 3월)까지 치솟았던 지정학적리스크지수는 2023년 9월 99.1p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팔 전쟁 이후 다시 악화하는 추세
 - ※ 세계평화지수(p) : ('15) 2.00 → ('17) 2.02 → ('19) 2.04 → ('21) 2.05 → ('23) 2.07
 - ※ 지정학적리스크지수(p) : ('22.M3) 324.2 → ('23.M3) 109.9 → (M9) 99.1 → (M11) 152.3
-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안보 및 경제적 위기 등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군비 지출을 증액하는 흐름이 강화
 - 세계 군비 지출은 2015년 이후 8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여 2022년 2조 2,400억 달러를 기록
 - 특히, 세계 군비 지출 증가율은 2019년 이후 둔화 추세였으나, 2022년 러-우 전쟁의 발발로 유럽이 2.7%p의 높은 기여도를 보이며 3.7%까지 확대
- 2024년에도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하는 등 군비 지출 증액 기조를 유지할 전망
 - 세계 군비 지출의 39%를 차지하는 미국은 역대 최대인 2024년 국방 예산 8,420억 달러를 포함한 총 8,86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NDAA)을 확정
 - NATO의 경우 회원국의 군비 지출 기준을 GDP 대비 최소 2%로 합의하였으며, 이 밖에도 러시아, 일본 등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예고

< 세계 군비 지출 추이 >



자료 : SIPRI(April, 2023).
 주 : 2022년 물가·환율을 고려한 실질 기준.

< 주요국의 2024년 군비 지출 전망 >

미국	역대 최대 규모(\$8,860억) 통과
NATO	국방비 GDP 대비 최소 2% 합의
독일	사상 첫 '국가안보전략' 발표, '24년 국방비 GDP 대비 2% 첫 달성 전망
핀란드	NATO 가입('23.4월), 국방비 '23년 대비 5% 증액(\$65억 8천만)
스웨덴	NATO 가입 추진, 28% 증액한 국방 예산(\$118억) 편성
일본	역대 최대 규모 편성(\$560억)
러시아	\$1,400억('23년 대비 29% ↑)

자료 : SIPRI, 언론 보도자료 종합.

- (시사점) 지정학적 위험 증대와 군비경쟁은 국내 안보는 물론이고 원자재 가격 불안, 공급망 차질 등 경제 여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관련 상황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대응책 검토를 지속할 필요

신 지 영 선임 연구원 (2072-6240, jyshin@hri.co.kr)

③ 중간에 닷 내린 물가

○ (의미)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하방경직성으로 중물가 현상이 고착화될 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다소 높은 물가 수준(중물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021년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물가는 2022년 중 정점을 통과하며 2023년까지 둔화세가 지속되는 중
 - 하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함에 따라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는 점차 느려질 것으로 보이며, 물가는 높지도 않지만 낮지도 않은 중간 수준에 고착될 전망

○ (내용) 2000~10년대의 저물가 시대가 재도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은 적지 않을 전망

- 2000년대 들어 세계화, 기술 혁신 등의 영향으로 저물가 현상이 이어져 왔음
 - 1980~90년대 글로벌 물가상승률 평균이 10% 후반대를 기록한 것과 달리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각각 4.2%, 3.6%를 기록
 - 이는 세계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발전, 기술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의 요인에 기인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저금리까지 겹쳐 '저물가-저금리' 국면에 진입
- 하지만 2021년 하반기부터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으며 2023년까지 다소 높은 수준을 지속 중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장기간 확대된 유동성,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잠재 수요 표면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글로벌 물가상승률은 2022년 8.7%를 기록
 - 글로벌 물가는 2022년 중 정점을 통과하며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3년 6.9%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
- 향후에도 탈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의 중물가 수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저물가 시대는 상당 기간 도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등 탈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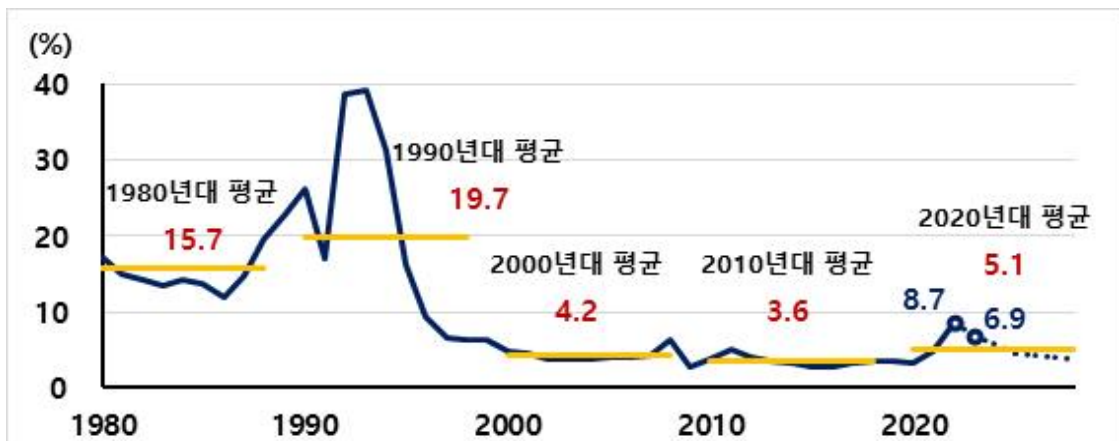
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왜곡 및 분절화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비효율성이 증가하는 상황

-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 원유 감산 등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 이와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물가의 하락을 저지함에 따라 물가는 상당 기간 중간 수준(중물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며, 세계 수요가 반등할 경우 고물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상존

-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주체 행태에도 영향

- 각국의 중앙은행은 중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금리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더 나아가서는 정책목표(물가상승률 2%) 수정도 고려할 가능성이 있음
- 가계의 경우 소비재를 이전보다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 기업의 경우에도 생산 비용 및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보이며, 한계기업의 증가세가 이어질 우려도 존재

< 글로벌 물가상승률 추이 및 전망 >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23.

- 주1) 전년 대비 기준
- 2) 2023년부터는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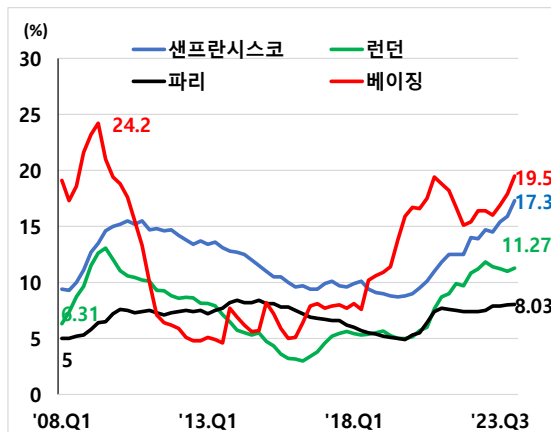
- (시사점) '중물가-중금리'라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정성, 경기침체 장기화 등의 리스크에 대비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함

노시연 선임연구원 (2072-6248, syroh@hri.co.kr)

④ 도시 파멸의 고리(Urban Doom Lo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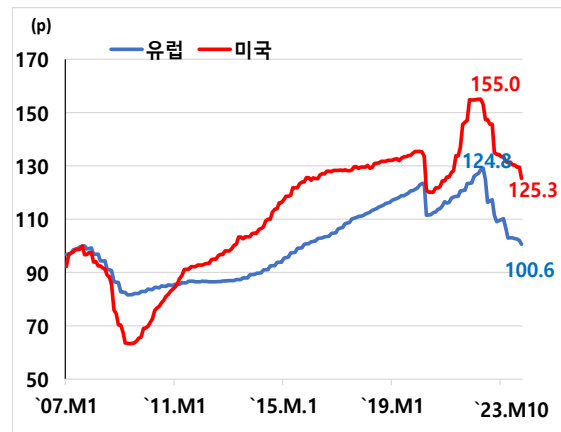
- (의미)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commercial real estate, CRE) 시장의 침체 장기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주요국 실물경기의 경착륙(hard landing)을 촉발할 가능성에 유의
 -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비중 증가, 주요국의 고강도 긴축정책으로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경기의 침체 국면이 지속되면서 세계 금융시스템과 실물경기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내용)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부실해지는 경우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로 디지털 뱅크런(digital bank-run)⁴⁾이 발생해 주요국 실물경기가 경착륙에 빠질 가능성이 존재
 - 주요국 오피스 공실률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도 전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
 - 2023년 3분기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공실률은 17.3%, 런던은 11.3%, 파리는 8.0%, 베이징은 19.5%를 기록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또한, 2023년 10월 기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CPPI, Commercial Property Price Index)은 전고점 대비 18.2% 하락, 유럽은 22.1% 하락

< 주요 도시의 오피스 공실률 추이 >



자료 : Bloomberg.

< 유럽 및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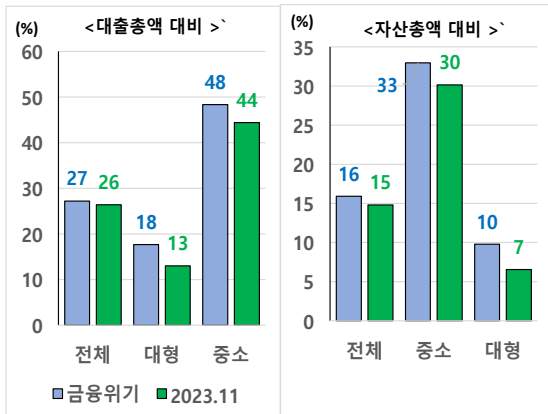


자료 : Green Street.
주 : CPPI 기준.

4) 온라인 및 모바일뱅킹의 발달로 대규모 고객 예금이 단시간에 인출되는 현상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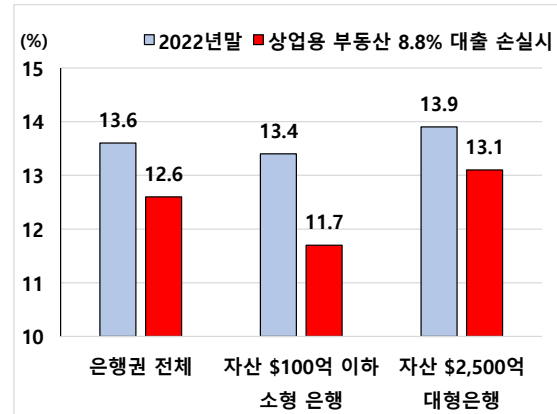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은 관련 익스포저가 큰 중소 은행에 대한 건전성 우려로 이어져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
 - 미국 은행권의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금융위기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중소 은행의 익스포저가 대형 은행보다 크게 높은 상황
 -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관련 은행의 대출 손실율이 8.8%에 육박하는 경우) 소형은행의 보통주 자본비율(CET1)은 2022년말 13.4% 대비 11.7%로 하락하는 반면, 대형은행은 13.9%에서 13.5%로 소폭 하락
 - 상업용 부동산 대출부실로 중소 은행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소지에 유의
- 또한,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은 주요국 실물경기의 경착륙을 유발할 가능성
 - IMF(23.4, Global Financial Stability)에 의하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로 미국 및 유럽 은행의 대출 능력이 감소하는 경우 미국, 유럽의 국내총생산은 각각 0.44%p, 0.45%p 하락

< 미국 상업용 부동산 모기지 익스포저 >



자료 : FRED.

< 미국 은행규모별 상업용 부동산 스트레스 테스트: 보통주자본 비율 변화 >



자료 : FDIC, MBA, KB국민은행.

-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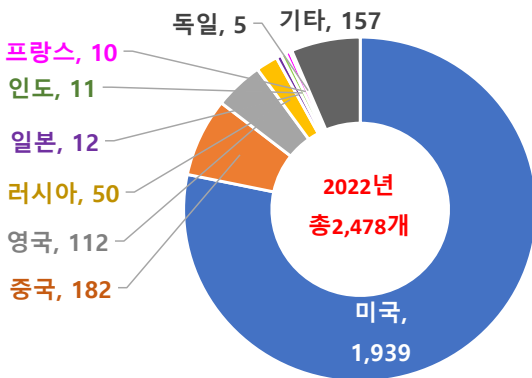
이 형 석 연 구 위 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5) 미 연준(Fed, 2023)의 스트레스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1) 실업률 10% 상승, 2) 주거용 부동산 가격 38% 하락, 3)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해 상업용 부동산 대출 전체 손실률이 8.8%에 달하는 경우를 상정.

⑤ 우주경제(Space-economy) 경쟁의 격화

- (의미) 지경학(geo-economics)적 리스크 증대에 따라 글로벌 정치·외교·군사적 필요성과 함께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우주경제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OECD(2012)는 우주경제를 우주의 탐구와 이해 및 이의 관리와 활용 과정에서 인류에 가치와 혜택을 창출하여 제공하는 모든 활동과 자원 이용으로 정의⁶⁾
- (내용) 정부 및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우주산업에 민간의 참여가 확대되는 한편 AI(인공지능)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르는 위성 서비스 시장 확대 등으로 2040년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시장규모로 확대 기대
 - 최근 들어 궤도 우주비행체 발사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 부문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음
 - 1957~2022년까지 전체 궤도 우주비행체 발사 누적 건수는 총 2,478건으로 이 가운데 미국이 1,939건(78.2%), 중국 182건(7.3%), 영국 112건(4.5%), 러시아 50건(2.0%)을 차지
 - 한편, 용도별 궤도 우주비행체 발사 현황을 보면 여전히 정부운용 발사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가장 크지만, 정부조달 상용 발사서비스를 포함하면 민간 비중이 50%를 상회

< 국별 궤도 우주비행체 발사 현황(1957~2022년, 누적 기준) >



자료 : UNOOSA, Our World DATA.
 주 : 위성, 탐사선, 착륙선, 승무원 우주선, 우주 정거장 비행요소 등을 포함.

< 용도별 궤도 우주비행체 발사 현황(2022년 기준, 건) >

상업용 우주선/우주 비행체	정부조달 상용 발사 서비스	정부운용 발사 서비스	계
66 (35.5%)	34 (18.3%)	86 (46.2%)	186 (100.0%)

자료 : Bryce Space Tech.
 주 : 실패 사례도 포함(상업용 우주선 및 우주비행체에는 NGO 포함).

6) OECD(2012&2022), Handbook on Measuring the Space Economy, 1st&2nd Ed.

- 글로벌 우주경제 규모는 위성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2022년 3,840억 달러에서 2040년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확대될 전망
 - 2022년 기준 글로벌 우주경제 규모는 3,8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위성산업이 2,813억 달러로 70% 이상을 차지
 - 한편, 이후 글로벌 우주경제 규모는 2040년까지 연평균 6%씩 성장해 1조 달러 이상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 우주경제는 규모도 미미할 뿐 아니라 국가 예산도 경쟁국에 비해 취약
 - 2021년 기준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약 2.6조 원으로 최측근 고점을 기록한 2017년 이후 4년 연속 감소
 - 2021년 기준 한국의 우주예산 규모는 4억 달러로 미국 598억 달러, 중국 161억 달러 등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⁷⁾

글로벌 우주경제 부문별 규모(2022년 기준)			글로벌 우주경제 규모 전망 (조 달러)			
구분	억 달러		구분	'30년	'40년	'50년
위성 산업	위성서비스	1,133	ULA	0.9	-	2.7
	지상위성장비	1,450	UBS	-	0.9	-
	위성체 제작	158	U.S. 상공회의소	-	1.5	-
	발사 서비스	70	Morgan Stanley	-	1.1	-
	기타	2.5	Bank of America	1.4	-	2.4
	소계	2,813	Klecha & Co.	0.6	1.1	-
위성 산업 외	정부예산	1,017	Mckinsey & Company	~1.0	-	-
	상업용 유인우주비행	15				
	소계	1,033				
총계	3,840					

자료 : Bryce Space Tech.

주 : 사사오입 등으로 소계와 총계 불일치.

자료 : Klecha & Co. Mckinsey & Company etc.

주 : Bank of America는 '45년 2.7조 달러 전망.

- (시사점) 우주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요국 간 경쟁도 치열해지는 만큼 관련 기초연구에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혁신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위성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내 관련 산학연 활용 및 국제 협력 촉진 등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함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우주산업실태조사 보고서.

⑥ 그린래시의 역습

- (의미) 주요국 기후위기 대응 전략이 경제적 부담 확대와 각종 사회적 갈등 고조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면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라는 새로운 움직임이 확산되고 주요국 탄소중립정책이 후퇴
 - 그린래시(Greenlash)는 Green(녹색)과 Backlash(반발)의 합성어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현상을 말함
- (내용) 에너지 가격 급등, 인플레이(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고통이 커지면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 현상이 확산, 주요국 탄소중립정책이 일부 후퇴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지연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르는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고통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국 탄소중립 후퇴 사례가 속출하는 한편 글로벌 탄소배출량도 증가세가 지속
 - 미국,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는 과도한 기후대응 정책에 반대한 여론과 정당 등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그린래시 현상 발생
 - EU나 영국 등에서는 기후대책 관련 예산 삭감, 내연 자동차 판매 금지 시기 연기, 석탄화력발전 규제 완화 등 탄소중립 후퇴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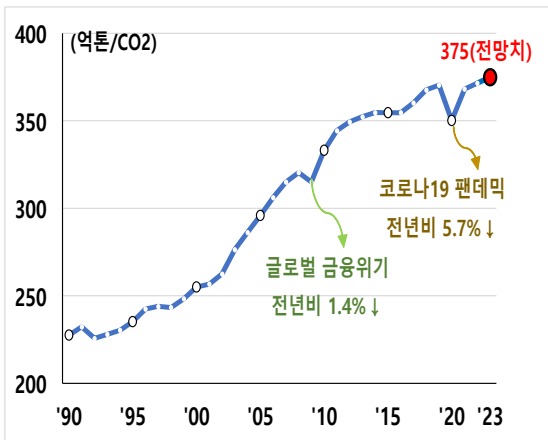
< 최근 주요국 그린래시 현상 및 탄소중립 후퇴 사례 >

국가	내용
그린래시 현상	스웨덴 -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에 대한 반대 여론 우세(찬성 42%, 반대 47%)
	독일 - 2024년부터 가정용 화석연료 보일러 사용금지법안 채택 후 과도한 기후 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독일을위한대안당(AfD) 지지율 상승(2위, 22%)
	네덜란드 - 2019년 도입된 가축농가질소배출규제에 비판하는 정당인 농민시민운동(BBB) 지지율 10%대로 상승
	미국 -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아젠다를 반대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상승
탄소중립 후퇴	EU - '기업 지속가능성 주의 지침' 대상에서 금융기업 제외 논의 시작 - 신규 배기가스 규제안인 '유로 7'을 현행 '유로 6'으로 유지
	스웨덴 - 2024년 기후 대책 관련 예산(약 2.6억 크로나) 삭감, 유류세 감면 등을 통한 내연기관 자동차 이용자 부담 경감, 신규 원자로 10기 건설 계획 발표 등 탈원전 기조 철회
	영국 - 휘발유 및 경유차 신차 판매 금지 시기 연기(2030년→2035년)
	기타 -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국가는 석탄화력발전 규제 등 에너지전환조치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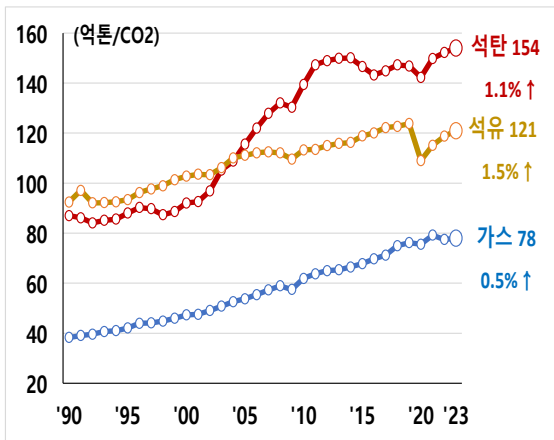
자료 : 각종 언론 보도자료.

-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탄소(이산화탄소, 이하 동)배출량이 증가세로 전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375억 톤에 이를 전망
- 특히, 탄소배출량이 가장 큰 석탄의 경우에는 2016년 150억 톤에서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142억 톤까지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154억 톤에 이르며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
- 한편, CCPI(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대응지수 순위는 2023년 기준 60위로 최하위권을 기록, 기후위기 대응 노력이 불충분한 것으로 평가
 - 세부적인 순위를 살펴보면 온실가스배출 부문 56위, 재생에너지 부문 51위, 에너지 이용 부문 60위로 나타남⁸⁾

< 글로벌 탄소배출량 추이 >



< 주요 에너지원별 탄소배출량 추이 >



자료 : Our World in Data; Global Carbon Project 2023.

주 : 2023년은 전망치.

- (시사점) 스티키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 끈적한 고물가) 지속,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에 따르는 경제적 고통해소 지연으로 향후에도 그린래시 현상은 지속될 전망이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받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은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유연성이 발휘되어야 하고,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나 기존 산업경쟁력 유지 및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8) 이상, ccpi.org 참조.

⑦ 디지털 범죄의 진화(Evolution of digital crime)

○ (의미)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를 악용한 디지털 범죄의 종류와 관련 피해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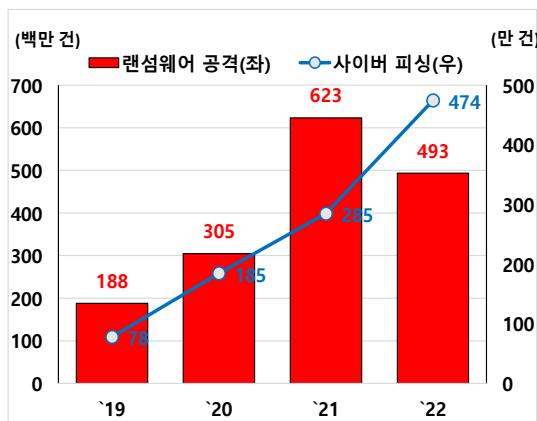
-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사용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손쉽게 악성코드를 제작 가능해 사이버 범죄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망

○ (내용) 코로나19 위기 이후 사이버 범죄의 규모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ChatGPT의 발전으로 이를 악용한 범죄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랜섬웨어(ransomware)와 사이버 피싱(phishing) 공격 수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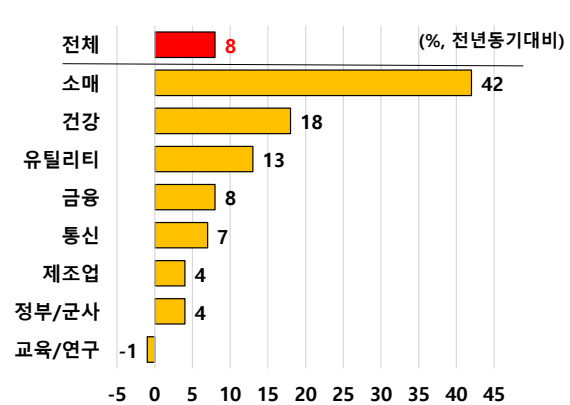
- 코로나19 위기 이후 글로벌 랜섬웨어 공격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22년에는 4억 9천만 건을 기록
- 2022년 사이버 피싱은 474만 건으로 2019년 대비 6배 가까이 급증
- 체크포인트(Checkpoint)에 의하면, 2023년 상반기 주간 사이버 공격 수는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소매, 건강 분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

< 글로벌 랜섬웨어 및 사이버 피싱 공격 수 추이 >



자료 : Statista, StationX.

< 2023년 2분기 글로벌 사이버 공격 수 증감률(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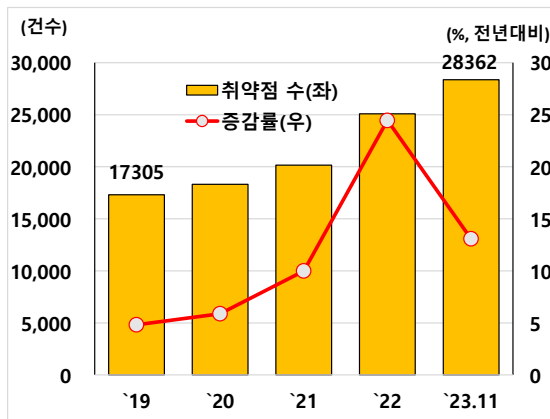
자료 : Checkpoint.

주 : 주간 평균 기준.

9) 랜섬웨어는 파일을 암호화한 후 사이버 범죄자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파일을 액세스할 수 없게 만드는 악성 소프트웨어 중 하나. 피싱은 사이버 범죄자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위장해 금융 또는 개인 데이터 같은 민감한 정보를 사기 행위로 획득하려는 시도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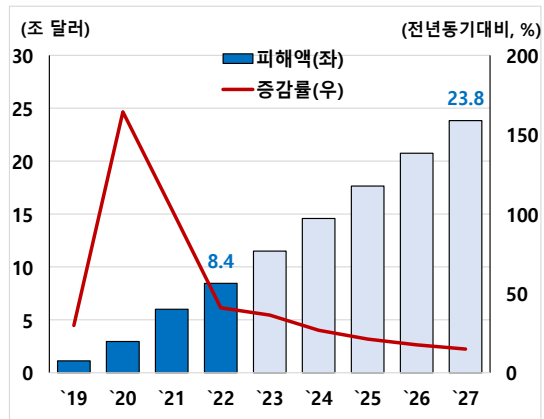
- 특히, ChatGPT가 발전하면서, 이를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늘어날 소지
 - 체크포인트(23.1)는 지하 해킹 커뮤니티에서 ChatGPT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개발하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
 - 최근에는 탐지 우회 기능을 가진 고급 멀웨어(Malware, 악성 소프트웨어) 생성과 배포, 피싱 페이지 제작 등을 제공하는 '프리드GPT(FraudGPT)'가 등장
 - 피싱 메일 생성과 배포를 돕는 사이버 범죄용 인공지능 챗봇인 '웜 GPT(WormGPT)'도 등장해 사용자가 사이버 범죄에 손쉽게 악용 가능
-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의 종류와 이와 관련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매년 발견되는 취약점(Common Vulnerabilities and Exposures, CVE)¹⁰ 개수가 증가하면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위협 노출이 증가
 -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은 '22년 8.4조 달러에서 '27년 23.8조 달러까지 약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연도별 탐지된 취약점(CVE) 수 >



자료 : CVE details.

< 전 세계 사이버 범죄 피해 비용 >



자료 : Statista.

- (시사점) 사이버 위협에 대해 예전보다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민·관이 더 긴밀히 협력해 사이버 보안 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성장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산업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도 필요¹¹⁾

이 형 석 연구 위원 (2072-6247, walden0230@hri.co.kr)

10) 공격자가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 코드의 오류를 의미.
 11) Statista에 의하면 2022년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의 규모는 2,221억 달러로 2030년까지 6,570억 달러로 성장할 전망.